

물가 상승에 10명 중 6명 '구내식당'... '커피·후식'도 끊었다

큰 폭으로 오른 물가 66.3% '실제 체감'
직장인 점심 적정 가격은 '6천원~1만원'
'비싸도 먹는다' 18%... '교통비 절약' 20%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실제 체감'하고 있고, 점심식사도 회사 및 주변의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16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앱 사용자 4179명을 상대로 실시한 '물가 상승에 대한 점심식사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6.3%가 큰 폭

으로 오른 물가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물가 상승에 우리 국민 대부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에 따른 것으로 응답자 중 27.7%는 물가 상승에 '조금 체감한다'고 답했고 '별로 체감 못한다'와 '아예 체감 못한다'는 의견도 각각 2.4%와 3.6%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큰 폭으로 오른 점심식사 가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적정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6000원~1만원 사이'가 전체 응답자 중 47.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어 '1만원~1만 5000원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5%, '1만 5000원 이상'과 '6000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5.2%와 14.1%로 조사됐다.

아울러 점심식사 절약방법에 대해서는 53.7%가 회사 및 주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비싸도 사 먹는다'는 응답은 17.9%이고, '직접 산 도시락'과 '편의점 이용'은 각각 16.5%와 12.0%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잔테크(짜다+재테크)' 소비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높아진 점심가격에 '커피 등 후식 중단'이라고 밝혔고, 이어 '교통비 절약' 20% '휴대폰 요금제 절약' 12.9%, '넷플릭스 등 OTT 구독 취소'도 9.4%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크라토스 모바일 앱 내 투표 참여자 4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정승호기자



삼성전자, 게이밍 스크린 '오디세이 아크' 출시

55형·1000R 곡률·세로형 '콕핏 모드'...새 폼팩터 제시

"책상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몰입감." 삼성전자가 새로운 폼팩터(제품 외관)를 적용한 차세대 게이밍 스크린 '오디세이 아크(Odyssey Ark)'를 16일 공개했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게이밍 모니터 크기인 55형에 자세에 따라 시야각은 물론 화면의 크기나 위치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디세이 아크(모델명 G97NB)는 1000R 곡률의 55형 스크린이다. 특히 마치 우주선에 앉아 있는 듯한 세로형 '콕핏 모드(Cockpit Mode)'를 제공한다. 또 기존 게이밍 스크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크린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와 비율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를 제시했다. 이 제품은 ▲HAS(높낮이 조절) ▲Tilt(상하 각도 조절) ▲Pivot(가로·세로 전환) 등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차세대기획그룹장 정경일 상무는 이날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55형은 책상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스크린 경험"이라며 "그동안 게이밍 스크린 제품들이 TV용 폼팩터를 그대로 썼다면, 신제품은 게임 전용으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스크린을 최대 4개(세로 모드인 경우 3개 화면)로 분할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뷰(Multi View)를 지원한다.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 시청 등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다.

오디세이 아크는 대형 스크린 중 최고의 게임 성능을 탑재했다. 4K 해상도에 55형 게이밍 스크린 중 처음으로 165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한다. GTG(Grey to Grey·밝은 회색에서 어두운 회색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응답속도 기준 1ms(0.001초)의 빠른 응답속도를 지원한다. 또 사용자가 별도 기기 연결이나 다운로드, 저장장치 없이도 클라우드 게임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연동 서비스 '삼성 게이밍 허브'가 내장돼 있다. 이밖에 '플렉스 무브 스크린(Flex Move Screen)'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화면 구성이 가능하다. 스크린 내에서 27형부터 55형, 16:9부터 21:9, 32:9까지 설정할 수 있어 FPS 게임부터 레이싱 게임까지 콘텐츠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게임 화면의 크기와 비율,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화질 측면에서도 최고 사양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오디세이 네오 G9에서 선보인 퀀텀 미

니 LED를 광원으로 사용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신경망'과 14비트(1만6384단계)로 밝기와 명암비를 제어할 수 있는 '콘트라스트 맵핑(Contrast Mapping)' 기술을 탑재했다. 더 선명하고 실감나는 게임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1의 고정 명암비와 HDR10+를 지원한다. 빛 반사를 최소화했다. 글로벌 안전인증 전문기업인 UL로부터 '글래어 프리(Glare Free)' 검증을 받은 '매트 디스플레이(Matte Display)'를 적용했다.

전용 컨트롤러인 '아크 다이얼(Ark Dial)'이 제품과 함께 제공된다. 각종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스크린 레이아웃과 설정값을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멀티뷰와 게이밍바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

음향에 있어서도 오디세이 아크는 60W 2.2채널 기반의 돌비 애트모스와 '사운드 돔 테크(Sound Dome Tech)'를 적용해 몰입감을 높였다. 상하 좌우에 4개의 메인 스피커와 중앙에 2개의 우퍼가 위치하고 있다. 초저역(45Hz)대까지 정확하게 깨끗한 재생이 가능하고, 공간감 있는 음향을 느낄 수 있다.

오디세이 아크는 ▲4개의 HDMI 2.1 ▲주변 기기 연결선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한 원 커넥트 박스(One Connect Box) ▲회전 가능한 월마운트 브라켓(Wall Mount Bracket) 등 편의 기능도 대거 제공한다.

게임 화면과 연동한 전용 UX(사용자 경험) 요소도 대거 탑재했다. 게임 화면의 색상을 자동으로 인식해 스크린의 빈 화면에 패턴 색상을 맞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액티브 엠비언트(Active Ambient)'와 측·후면 라이팅을 동기화 해주는 '이클립스 라이팅(Eclipse Lighting)'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하혜승 부사장은 "오디세이 아크는 사용자가 원하는 게이밍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차세대 게이밍 스크린"이라며 "오디세이 아크를 중심으로 게이밍 스크린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국내에서 오디세이 아크는 삼성닷컴을 통해 이달 24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출고가 기준 340만원이다. 내달 7일부터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오픈 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정 상무는 최근 TV나 IT 기기 수요 둔화 우려와 관련해 "지나해와 올해 게임기 신모델 출시 이후 주변기기를 교체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20대에서 30대까지 폭넓게 헤비 게이머를 대상으로 제품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니기자

한끼 든든 '나혼자 식사'... '요리 배우자' 자취생들 열풍

1인 가구의 대표적인 고민은 '식사 해결'이다.

요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워 혹은 여건 상 어려워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자취생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1인용 식재료, 밀키트 등 서비스, 상품, 콘텐츠 등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클래스101은 식사 준비가 고민인 자취생들을 위해 요리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한식부터 일식, 중식, 양식, 다이어트식 등 다양하다.

16일 클래스101에 따르면 '혼자서도 잘해요! 송송송 송세프와 함께하는 혼밥 요리교실'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해산물 등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를 배울 수 있다. 스키야기, 부타동, 스튜, 버터치킨커리 등 다채로운 요리들로 구성돼 있다.

'공부의 쿠킹클래스, 전세대의 가정식을 배워보자'는 집에서도 이국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게 일본, 인도, 프랑스, 멕시코 등 각 나라의 대표 요리 레시피를 알려준다.

건강 식단을 배울 수 있다. '잡탕테이블의 눈과 입이 행복한 가정식 레시피'는 건강 식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맛과 건강 모두 챙겼다. 채소 조합과 다이어트 식단, 브런치, 건강식 등을 배울 수 있다.

클래스101, 일식·중식·양식·건강식에 디저트까지



리화쌤의 '샐러드를 무궁무진하게 확장하는 법! 이 모든 걸 샐러드로 만들 수 있다고?' 클래스도 있다. 재료 손질, 곡물 선택, 샐러드 요리법 등 노하우를 알려준다.

디저트 만들기도 주목을 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솜스네 홈카페입니다'에서는 집에서 카페의 달콤한 음료들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가 공개된다. 홈카페를 즐기길 전 필요한 재료와 소품 구매처 소개부터 초콜릿, 녹차, 얼그레이

이, 민트 등 주 재료들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 레시피를 알려준다.

프리미엄 엔제티의 '싱그러운 과일을 더욱 달콤하게! 프리미엄 수제청 만들기' 클래스도 있다. 레몬, 딸기, 청포도, 패션후르츠, 배도라지대추, 장미 등 수제청을 제조해 볼 수 있다. 음료, 요거트, 와플, 파르페, 칵테일 등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도 배운다.

최이슬기자

롯데그룹, 광주복합쇼핑몰 구상 이달중 가시화 전망

롯데칠성 공장·어등산관광단지 등 다수 입지 거론되지만 '글쎄' 롯데측 "아직 결정된 것 없다...8월말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예정"

롯데그룹의 광주 복합쇼핑몰 구상이 이달 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16일 광주지역 유통가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광주에 입점할 대형복합쇼핑몰의 규모와 위치, 형태 등 구체적인 구상을 이달 내 내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입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은 광주 북구 본촌공단내 롯데칠성 공장 자리 등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2만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주 롯데칠성 공장 자리가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게 없다는 게 롯데백화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어등산관광단지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광주백화점 한 관계자는 "그룹차원에서

인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에 이달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내기 위해 막박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곳의 부지가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는 단계이다"고 말했다.

롯데는 광주에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울렛 수안-월드컵점,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등을 운영 중이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도 이번주 광주 복합쇼핑몰 구상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번달 '빅3유통기업'의 복합쇼핑몰 건립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본부

"스테이크부터 간편식까지"... 빙스, 추석 선물세트 출시



빙스가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사전 예약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빙스는 지난해 추석에 선보인 스테이크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 올해는 실속형 선물

수요를 겨냥해 시그니처 간편식 선물세트 2종도 선보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명절 선물에도 나타난 양극화 추세를 반영한 행보다.

프리미엄 스테이크 선물세트는 '토마호크 세트', '포터하우스 세트', '스테이크 세트' 등이다. 특히 포터하우스 세트는 T자 모양의 뼈를 중심으로 안심과 등심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 세트로 압도적인 중량을 자랑한다.

빙스의 인기 레스토랑 간편식(RMR)으로 구성된 실속형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빙스 베스트 세트'는 오리지널 폭립과 슈바인학센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세트 제품이다. '빙스 바비큐 폭립 세트'는 오리지널 폭립 3개 세트 구성했다.

추석 선물세트는 빙스, 제일제면소, 더플레이스 등 CI푸드빌 외식 브랜드 매장 및 통합주류업 '세프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제품은 30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순차 발송한다.

뉴스스